

책의 혁명을 몰고온 '코덱스'의 등장

서양의 금서 이야기 — 7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서기 2세기에 등장한 '코덱스'는 책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생산하는 데 전문성과 고비용이 요구되는 두루말이 형태에서 벗어나면서 당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던 독자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덱스는 책읽는 습관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니, 명상이 독서의 목적으로 자리잡게 됐다.

책의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해 대응하는 첫번째 방식에 대해 몇 마디 더 말해둘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개인 도서관이 늘어났다는 사실에서도 독서의 필요성이 늘어났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벼락부자가 된 무지렁이가 문학전집을 구입해 거꾸로 꽂아 놓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도서관이 예나 지금이나 주인의 교양보다는 과시욕을 드러내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페트로니우스는 《사티리콘》에서 해방노예인 트리말키온을 통해 이런 풍조를 조롱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책과 독서가 부유한 사람의 여가와 삶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으면 족하다. 트리말키온도 가끔 책을 열고 몇 구절을 읽었다.

또한 로마 제정기에는 독서론을 다룬 책이 여러 편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저작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페르가몬의 텔레푸스, 에레니우스 필론, 비티니아의 다모필은 모두 애서가를 위한 지침서를 썼다고 전해진다. 이들의 저작은 독자가 책을 선택하는 방법, 말하자면 가장 훌륭한 책을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책이 아주 다양하고 많이 발간됐기 때문에 독자가 독서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어렵게

됐거나, 또는 독자층은 오직 엘리트만으로 구성되는 시대를 지나 더욱 두꺼워졌기 때문에, 그 중에는 책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거나, 어떤 책을 고를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여성 독자층의 저변 확대

책의 수요가 늘어난 데 대한 대응방법 가운데 두 번째는 새로운 텍스트가 늘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관한 사례도 역시 오비디우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오비디우스는 독자의 요구와 기분이 변화하는 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으로서, 《사랑의 기술》의 첫 두 권을 발간한 뒤, 오직 여성독자를 위해 세 권을 썼다. 우리는 여성독자의 모습을 이미 고전시대의 그리스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제정기 로마에서는 여성독자가 더욱 당당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책의 수요, 다시 말해 독서의 수요에 부응하는 세번째 방법은 특히 책의 혁명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기 2세기부터 두루말이의 자리를 대신하는 '코덱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코덱스'는 시대의 요청을 여러 모로 만족시켰다. 두루말이를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특히 두루말이를 만드는 원료인 파피루스는 이집트의 독점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루말이에 비해 '코덱스'는 쪽을 나눔으로써 문헌을 앞뒤면에 모두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이집트의 외부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가죽종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두루말이보다 다루기 쉬운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주 들춰보고, 깊이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텍스트에 적합했다. 이런 텍스트는 그리스도교 문헌이나 법전 같은 것으로서, 제국의 말기에 더욱 많이 생산됐다.

책 모양의 변화와 책읽는 행위의 변화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미 우리는 기원전 424년 아리스토파네스가 쓴 《기사》에서 목독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을 읽었다(264호 참조). 그러므로 책모양과 관계없이 교육의 수준에 따라 책 읽기의 기술은 차이가 있었다. 이제 세상은 다신교 세계에서 그리스도교 세계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세계도 점점 라틴계 서방세계와 그리스계 동방세계로 나뉘었다. 우리가 1469년 로마 교황청 사서인 지오마니 안드레아가 만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세”라고 부르는 시대가 점점 그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독서의 옛 관습과 새로운 관습이 동방과 서방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는 일도 흥미롭다.

책의 형태는 동방과 서방이 같았지만, 독서의 관습은 서방에서 더 크게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세기말부터 로마 황제는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동서 로마로 나뉘었다. 그 뒤 서방



오비디우스는 독자의 요구와
기분이 변화하는 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던 작가이다.
(사랑의 기교)의 경우 오직
여성독자들을 위해 제3권을
썼을 정도다. 사진은
(사랑의 기교)의 국내역본.

세계는 5세기 중엽 게르만 민족에게 정복당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던 동서로 가는 이제 더욱 이질적인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리스 양식의 동방은 라틴 양식의 서방보다 훨씬 풍요롭고 앞섰다. 그리스 양식의 비잔틴 세계에서는 중세 내내 공교육과 사교육, 기초교육과 고등교육이 자리잡고 있었고, 곳곳에 관료 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문자교육이 세속 사회에도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서방 세계는 달랐다. 목숨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전사(戰士)가 지배하는 사회, 그러면서도 여성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생식력 때문에 보호하는 한편, 육체와 정신의 즐거움을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 게걸스럽게 많이 먹는 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서방세계였다.

그러므로 라틴계 서방세계에서 독서는 아주 특별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고대세계에서는 일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는 독서가 주로 정원이나 주랑에서 이뤄졌고, 게다가 광장과 거리 곳곳에서도 글을 만나는 기회가 널려 있었지만, 중세초기의 서양은 교회·독방·수도원식당·수도원·교회학교, 또는 군주의 궁정에서만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책읽기는 거의 대부분 성서와 그밖의 영적 교화를 위한 글에 한정됐다. 책·도서관·독서를 기리기 위한 시는 오직 교회와 수도원에서 번성했다.

혁신적으로 바뀐 책의 의미와 용도

그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독자에게만 말을 거는 비명문을 가진 묘비명도 언제나 종교적인 공간에서만 존재했다. 이들은 비록 고대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이 글을 읽는 고대여...”라는 형식으로 “독자에 대한 호소”를 잘 편찬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별로 많지 않은 사람에게만 말을 걸 수 있을 뿐이었다. 고대세계에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한정된 독자만이 묘비명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서고트족·부르군드족·프랑크족은 서방세계로 들어가 정착할 때까지 ‘문 문자’를 종교적 목적에서 조금 이용했을 뿐, 제대로 글자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법도 몇몇 전문가의 기억에 따라서 집행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한정됐다.

그렇지만 중세초 유럽에서는 독서상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글을 큰 소리로 읽는 데서 웅얼거리는 독서, 또는 속으로 읽는 독서로 변화했던 것이다. 어째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중세초 유럽의 독서술에는 일대 변화가 있었다. 소리내 크게 읽던 전통이 속으로 읽는 독서로 바뀐 것이다. 이같은 변화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독서목적이 달라진 데서 찾을 수 있다. 책을 읽는 주된 목적이 신을 알고 자기영혼을 구원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가? 첫째, 이제 책을 읽는 목적은 특히 신을 알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명상하고, 달달 외워야 하는 것이 됐다. 둘째, 책모양이 ‘코덱스’로 바뀐 뒤, 텍스트를 쪽으로 나눠 적을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여러 구절을 다시 읽고 대조하는 일이 쉬워졌다. 이처럼 독서는 이제 명상을 위한 것이 됐다.

셋째, 독서를 가장 흔히 실천하던 종교기관의 공동체 생활은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의무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책의 의미와 용도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텍스트를 많이 썼지만, 별로 읽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옮겨적다 보면 이미 몸이 피로해지기도 했지만, 존엄자 베드로의 말대로, 옮겨적기 자체가 손으로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책은 반드시 독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건한 신앙의 노력이거나 자기구원의 수단이었다. 또한 그것은 가산이기도 했다. 그리고 가장 성스럽고 값지고 기념비적인 형태로, 성스러움과 그것의 신비를 나타내는 기호가 됐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전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과정의 책과 독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했다. 중세 라틴계 서방 세계에서 웅얼거리는 독서, 또는 속으로 읽는 독서를 중시하는 풍조가 그리스도교와 함께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큰 소리로 읽는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고대에서 목독을 알고 있었듯이, 중세도 음독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다. 교회에서 의식을 집행할 때, 교화를 위한 텍스트를 읽을 때, 사람들은 큰 소리로 책을 읽었다. 또한 공동체의 식당이나 교회에서, 또는 학교의 읽기 연습에서 음독이 있었던 것이다. 아마 수도원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높은 소리로 대중 앞에서 읽는 행위는 결국 역사 해설의 경우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